

최저임금 선동문안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백수 신세를 면하기 어려워 알바생에 머물고 있고, 평생 땀 흘려 일해도 한 달 임금을 백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700만명이나 됩니다.

여러분은 한 달 월급이 얼마나 되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한 달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단신노동자가 한 달을 살기 위한 생계비는 151만원이지만 최저임금은 그보다 턱 없이 부족한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5년을 맞았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법으로 임금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지만 최저임금만 보장하면 되는 것처럼 왜곡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심각한 사회양극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액수조차 몰랐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대기업만 밀어주는 정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공약했던 재벌 횡포를 근절할 경제민주화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슈퍼 갑’인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면서도 경제 어려움을 운운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최소한의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노동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장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5,910원, 한달 1,235,190원의 요구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어야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